
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준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26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 25.

발 의 자 : 박준태 · 조지연 · 고동진
구자근 · 김승수 · 조배숙
김장겸 · 강승규 · 송석준
안상훈 · 장동혁 · 곽규택
김상욱 · 이현승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, 경력, 생활환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소년범죄의 처리절차가 가해자인 범죄피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피해영향 진술이 검찰의 조사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검사의 결정 전 조사단계에서 소년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의2).
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에”를 “제3항에”로 한다.

- 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소년피해자의 의견을 조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의2(검사의 결정 전 조사)	제49조의2(검사의 결정 전 조사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</u>
	<u>면 소년피해자의 동의를 받아</u>
	<u>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소년</u>
	<u>피해자의 의견을 조사할 수 있</u>
	<u>다.</u>
② (생 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③ <u>제2항에</u> 따른 조사를 할 때	④ <u>제3항에</u> -----
에는 미리 피의자 또는 관계인	-----
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여	-----
야 하고,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	-----
인권을 존중하며, 직무상 비밀	-----
을 엄수하여야 한다.	-----.
④ (생 략)	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